



‘음성 성형’ .. 신 목소리를 낭랑하게

글_ 조철현 문화일보 기자 choch@munhwa.co.kr

목소리도 외모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까닭일까. 최근 들어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나 다른 성(性)의 목소리를 내거나, 각종 발성 장애로 목소리가 변해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목소리 자체를 바꾸는 음성 성형 치료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음성 치료 및 성대 성형술은 대개 질환 치료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음성 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미용을 위한 목소리 성형, 성(性) 전환자들을 위한 성대 성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다.

목소리는 폐의 호흡이 목의 성대를 진동시키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성대는 목의 좌우 양쪽에 위치한 크기 2cm 미만의 발성기관으로, 말을 할 때 양측의 성대가 서로 밀착, 진동하면서 목소리를 생산해 낸다. 진동 횟수는 보통 1초에 150~200회 정도다. 이 성대가 목소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발성기관이다. 또 성대의 크기나 모양을 인위적으로 바꿔주거나 보형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성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쉬거나 듣기 거북한 목소리, 주사로 OK

목소리가 쉬거나 듣기 거북하게 변하게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감기나 급성후두염 등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질환도 있지만 성대 질환이나 후두신경 이상 등 증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후두암, 갑상선암, 폐암 등 악성질환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목소리의 변화가 신체의 노화와 함께 성대가 노화되는 ‘노인성 후두’나 성대 기능에 이상이 생겨 유발되는 ‘성대 마비’ 때문일 경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성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쉬거나 바람 세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사래가 잘 걸리

게 된다. 또 선천적으로 성대가 붙어 있어 아무리 큰 목소리를 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신 목소리가 나오는 ‘유착성 성대’, 성대에 원인 모를 흠이 생겨 신 목소리가 나는 ‘성대구증’ 등 치료가 어려운 성대 질환도 목소리를 나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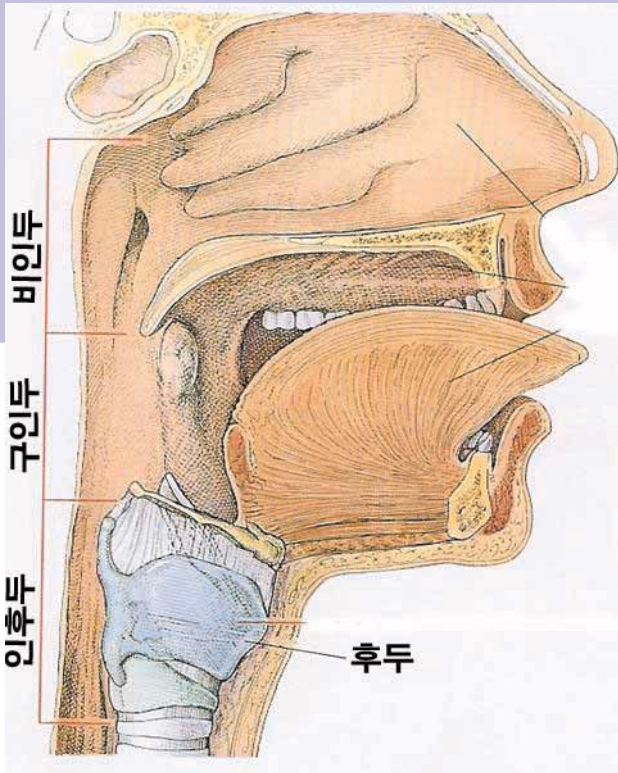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목소리는 전문클리닉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성대 마비나 난치성 성대 질환들은 주사로 아테콜, 로필란, 레비덤 등 안전한 보형 물질을 성대에 주입, 성대의 볼륨을 살려 예전과 같은 목소리를 되찾는 ‘경피적 성대성형술’이 효과적이다. 이 성대 성형술은 목 부위의 절개나 전신마취 없이 15~20분 정도로 시술 시간이 짧다. 시술 후 바로 음식을 섭취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성대 마비의 경우 1회 시술로 반영구적으로 목소리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성대에 원인 모를 흠이 패어 신 소리가 나는 성대구증, 성대노화로 인한 노인성 후두, 성대가 붙어 떨어지지 않는 유착성 성대 등 난치성 목소리 질환도 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성대가 모두 마비된 경우에는 증상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이성(異性) 목소리, ‘성 전환 음성 성형’으로 해결

성 전환 음성 성형은 다른 성(性)의 목소리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나 트랜스젠더(성 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에 있는 성대이다. 성대는 목소리의 높고 낮음을 결정한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성대의 길이가 길고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를 내게 된다. 또 음색의 차이는 입의 뒤쪽 목부분인 ‘인두강’이 결정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인두강과



구강내의 공간이 길고 크기 때문에 남성의 음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여성 목소리로의 음성 성형은 넓은 남성의 성대를 절개, 단축시키거나 축소시켜 목소리 주파수를 올리는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 음성성형술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호르몬 작용 이상으로 인한 부신성기증후군이나 재생 불량성 빈혈의 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 남성화된 목소리를 갖게 된 여성에게도 도움이 된다.

여성의 목소리와 같은 고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의 경우에는 음성 성형이 비교적 간단하다. 성대 근육 중 목소리의 톤을 높이는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마비시킴으로써 높은 음을 내지 못하게 하거나 경피적 성대 성형술을 이용, 성대 근육에 보형물을 주입해 작은 성대를 크게 만드는 성형방법을 이용한다. 두 방법 모두 전신마취나 후두 절개의 부담이 없어 주사로 음성 성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톡스의 경우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3~6개월 간격으로 다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루 2ℓ 이상 물 마셔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야

20~30대의 젊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질환이 있다. 바람이 새는 듯한 선 목소리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끊기는 목소리가 주요 증상이다. 말을 시작하거나 이어나가기가 힘들고, 긴장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더 심해진다.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의 근육을 조절하는 후두 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성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러나 근전도로 이상 신호가 전해지는 성대 근육을 찾아 선택적으로 보톡스를 주입, 성대가 이상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 시술 시간이 짧고 치료도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보톡스의 효과가 한시적이라 3~6개월마다 재주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2ℓ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목이 건조해져 소리가 잘 나지 않을 때 따뜻한 물 등으로 성대 점막에 수분을 공급하면 한결 부드러워진다.

전반적인 몸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체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면 성대도 함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을 건조하게 하는 술이나 커피, 담배도 삼가는 게 좋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목소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ST**



글쓴이는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후, 서강대에서 신문방송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